

전남도, 이달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고흥 별나로마을

갯벌체험, 바다낚시, 농촌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바다·농촌·우주 경험 가능한 특별한 여행지

전라남도는 바다, 농촌, 우주 체험을 모두 경험할 '고흥 별나로 마을'을 2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고흥 포두면 해장만 앞바다에 자리한 별나로 마을은 거북이 모양을 닮은 지형이 특징인 아름다운 마을이다. 푸른 바다와 농촌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갯벌체험, 바다낚시, 농촌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마을 앞 청정 갯벌에서는 바지락, 소라, 칠게 등을 관찰하고 직접 잡아보며 해양 생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갯벌 체험이 사계절 내내 이뤄진다. 직접 잡은 해산물은 즉석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제철 굴구이 체험으로 따뜻한 추억을 더할 수 있다.

고흥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유자청 만들기 체험은 직접 만드는 즐거움과 함께 유자의 생육 과정을 배우면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담은 나만의 유자청은 건강과 추억이 담긴 선물로 가져갈 수 있다.

별나로 마을 인근에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를 시작한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과학에 관한 기본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로켓과 인공위성 등 다양한 전시품과 기획전시실, 3D 입체영



상관 등 다채로운 시설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팔영산휴양림,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남포미술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고흥 별미인 삼겹살 백반, 매생이 떡국 등 먹거리가 가득하다.

별나로 마을은 가족 단위 여행, 소규모

모임, 단체 숙박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객실 구성이 가능하도록 펜션 7동을 운영하고 있다. 숙박 예약, 체험프로그램 문의, 가격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 (<http://byulnarovi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별나

로 마을은 별과 농촌, 바다가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마을로, 가족과 친구, 연인 모두가 즐거움을 누릴 여행지"라며 "농촌마을의 특별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매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매력 광주' 세계에 알릴 유학생 서포터즈 모집

제3기 20명 모집... 외국인 유학생, 민간외교관 역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의 매력과 지역대학 정보를 세계에 알릴 '제3기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20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유학생 서포터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주 유학생·관광정보를 알리고, 광주시의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민간외교관 역할을 맡게 된다.

신청 자격은 광주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확정된 외국인 유학생이다. 광주시는 SNS 활용 능력, 한국어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별·국적·재학 대학 균형을 고려해 3월 중 최종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유학생 서포터즈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실적에 따라 1건당 2만5000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서포터즈 전원에게 공식 수료증을 발급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서포터즈 활동은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광주지역 취업·정주 시 귀중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서포터즈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www.gwangju.go.kr/main.do)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전자우편(dlguswn7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062-613-3692)와 광주국제교류센터 외국인지원팀(062-714-2732)으로 문의할 수 있다.

강진정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는 광주와 지역 대학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광주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주를 사랑하는 유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 동구는 최근 '2026년 제1회 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핵심 보육사업 방향을 담은 '2026년 동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해 동구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동구'를 비전으로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확정

3개 분야 28개 사업 확정, 보육 인프라 선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등 3개 분야, 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특히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계림4구역(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늘어날 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아이 한 명 한 명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 남구, '안심 택배함·놀이터' 정기 점검 실시

파손여부 등 확인... 주민 생활 밀착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2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심 택배함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 노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양림동과 방림2동, 월산4동, 월산동 행복복지센터 및 남구청 별관에 설치된 안심 택배함 5곳과 월산4동에 있는 안심 놀이터 1곳까지 6곳이다.

먼저 남구는 1인 여성 가구 등이 안전하게 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CCTV 운용 상태를 비롯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비 가림과 받침대 시설 상태, 야간 조명 시설 및 주변 환경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한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심 놀이터 현장을 방문, 놀이기구의 균열·파손 여부와 놀이시설 청결 및 부대 시설 파손 상태,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하고, 정기 점검 체계를 강화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달에 1번씩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구청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집 앞에서 누리는 문화... 북구, 생활문화센터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4개 생활문화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 개시... 민화·하모니카·유튜브 강의 등 총 9개 과정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주민들의 일상을 문화로 채우는 생활문화센터의 정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신용·우산·운암·일곡 생활문화센터 4개소에서 진행되며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북구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에 건립한 일곡 생활문화센터가 문을 열면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센터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신용(민화, 하모니카) ▲우산(프랑스자수, 캘리그라피) ▲운암(가락장구, 캘리그라피) ▲일곡(서플댄스, 유튜브 학교, 칼림바) 등이

정규 과정은 다음 달까지 6주간 제공되고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 이외에 별도의 재료비가 부담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일곡 생활문화센터에서는 테라리움, 스모어쿠키, 천연삼푸 만들기 등 6개의 워데이클래스가 열려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추진 일정은 북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 신청 및 기타 문의는 각 생활문화센터에 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2026 나주 방문의 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